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박영선: 723-4251)
 제 목 참여연대 숙년회 '노약자 장애인 보호석' 자리 비워두기 캠페인 전개
 날 짜 1997. 11. 23. (총 1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熟年會 지하철 노약자 보호석 확보 캠페인 전개

일시 및 장소: 1997년 11월 23일 (일) 오전 10시 / 1호선 서울역 - 청량리 구간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朴相增) 60세 이상 노인회원의 자치모임인 숙년회(회장:李成烈)는 11월 23일(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노약자 장애인 보호석 비워두기 캠페인'을 지하철공사 후원으로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 구간에서 전개했다.
2. 이 캠페인은 최근 노약자와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를 위해 지정된 노약자 장애인 보호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서, 세대간 불신 등 여러 가지 잡음이 사회문제화되는 현상에 관하여 사회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3. 이날 참여연대 숙년회원 등 70여 명(숙년회 24명, 서울시 4H 연합회 48명 등)은 오전 10시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역무실에 모여 2인1조로 지하철에 승차, 보호석 비워두기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보호석에 앉아있는 승객에게는 노약자 장애인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고, 양보하도록 권유했다.
4. 한편 이성렬(李成烈) 참여연대 숙년회 회장은 이 행사를 11월 30일(일)과 12월 7일(일)에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